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와 개선안

김은설 연구위원

7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농어촌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총인구대비 농가 인구 비율은 1970년대 44.7%, 1980년대 28.4%였으나 2000년대에는 8.6%, 그리고 2013년은 농업인구 2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근년 들어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점차 가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귀농현상은 농어촌 인구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흐름에 농어촌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취약성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육아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징 및 요구를 고찰해보았다. 특히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에 기반하여 지역적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하고자 하였다.

1. 서론

농어촌 교육·보육 서비스는 도시와는 다른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농어촌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를 이루면서 나타난 이농현상은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영유아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반면 농어촌의 고령인구 비율은 높아져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된

경향이 있으나 이에 비해 영유아에 대한 그것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우선적 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무상 교육·보육의 전면 실시로 도·농간 보육료 지원 차이가 없는 보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농어촌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취사부인건비, 차량운행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와는 차별되게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정책을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로 수행한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김은설·윤재석·윤지연, 2015)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촌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버스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 등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꾸준히 힘써왔다.

그럼에도 농어촌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은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의 보장,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산발적 주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적은 영유아 인구로 인해 낮은 수익성을 우려해서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민간의 진입이 적고, 이로 인해 다양한 규모의 신규시설이 부족해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¹⁾.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질적 수준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어린이집의 경우 학력이나 능력이 높은 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교육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농어촌 유치원의 대다수가 공립병설유치원이고 많은 경우 유아 수 부족으로 인해 다연령 혼합반을 이루고 있어, 연령별 누리과정의 운영에 최적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또한 읍면 소재지에만 국공립 또는 법인시설이 설치되어 농어촌 가정 영유아가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은 미진하며 관련 연구 또한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의 취약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의 인식을 심어 청년 인구의 유입과 출산을 제고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15년과 2014년 실시한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도시 지역의 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지

니고 있는지, 관련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하고자 하였다.

2.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약성

가. 다수의 혼합 연령 반

농어촌의 연령별 학급 구성 현황을 보면,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유치원의 연령별 반 구성율이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어린이집은 0세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연령혼합반인 복식학급 구성 비율이 높고 어린이집도 혼합연령반이 도시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편성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이 지역의 특이점이다. 즉 연령별 단일반 편성보다는 연령을 혼합하여 하나의 학급으로 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혼합연령반은 여러 연령을 한 사람의 교사가 담당해야 하므로 교육·보육 활동 지도에 있어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고 교사의 지도 범위 또한 확장되기 힘들다. 특히 연령별 누리과정을 운영하기는 적절한 환경이라 보기 어렵다. 도시와 비교할 때 농어촌에서 연령을 혼합하여 반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교사 투입 등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 높은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자녀 비율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1) 서문희·도남희·송신영(201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방안. 농림수산식품부·육아정책연구소.

〈표 1〉 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학급(반) 설치율

단위: %							
유치원 학급 ¹⁾	3세학급		4세학급		5세학급		복식학급
대도시	69.6		80.4		90.6		25.4
중소도시	63.4		74.9		85.9		22.5
농어촌	47.2		50.9		53.5		37.1
어린이집 반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연령반
대도시	47.8	82.0	86.8	54.4	35.1	31.1	35.5
중소도시	45.5	80.0	86.5	48.5	29.5	26.0	43.5
농어촌	39.0	81.8	82.8	59.1	30.5	29.1	47.3

주: 1) 공립단설유치원이 과대표집되어 응답에 편파가 일부 있을 수 있음.
 자료: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p. 76~78 표 재구성.

〈표 2〉 가정 특성별 재원아 비율

단위: %, 개원(개소)						
가정 특성	농어업종사	모 취업	조손	다문화	한부모	사례수
유치원						
전체	21.8	53.4	3.4	13.4	4.4	188
공립	25.6	55.8	4.0	15.6	4.8	143
사립	6.3	44.0	1.4	6.2	2.9	45
어린이집						
전체	10.0	44.0	1.3	6.9	2.0	412
국공립	14.6	54.1	0.7	8.7	2.1	33
사회복지법인	14.8	44.5	2.7	12.2	3.1	45
민간	11.9	42.3	1.5	7.8	2.3	187
가정	5.2	43.7	0.7	3.7	1.3	147

자료: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02, p. 105 표 재구성.

있는 가정의 특징적 측면을 살펴보면, 모취업 가정이나 다문화, 조손 가정 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육아지원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표 2 참조).

구체적으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가정의 특성을 보면,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1.8%, 어머니가 농사일을 포함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53.4%, 조부모와만 살고 있는 조손가정은 3.4%, 다문화가정 13.4%, 한부모가정 4.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립유치원에서 이러한 취약 가정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가정에게 입학 우선 순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44%, 조손가정 1.3%의 비율이었으며,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6.9%, 한부모 가정 영유아는 2%로 유치원 경우 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다. 교사의 낮은 학력 수준

농어촌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학력을 도시 지역과 비교해보면, 유치원 교사는 공립

〈표 3〉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학력

단위: %, 명

구분	고졸	2년제 졸	3년제 졸	4년제 졸	대학원 졸	사례수
유치원						
전체	0.5	13.0	27.7	40.8	18.1	513
공립	0.9	7.1	3.8	55.0	33.2	245
사립	0.0	18.5	49.6	27.7	4.2	268
어린이집						
전체	12.2	53.6	10.0	23.0	1.1	2,141
국공립	5.6	43.3	14.0	34.0	3.1	208
사회복지법인	3.5	55.5	11.5	28.4	1.0	372
민간	13.6	54.7	10.4	20.6	0.7	1,118
가정	18.9	54.3	6.1	19.4	1.4	444

자료: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110~112 표 재구성.

유치원 비중이 높은 이유로, 도시에 비해 학력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어린이집은 도시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표 3〉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도시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 비율이 낮고 대학원 졸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 중소도시의 경우 전문대 졸 53.2%, 4년제 34.6%, 대학원 졸 12.3%임²⁾). 그러나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해당하며 농어촌 사립유치원은 과반수 이상이 전문대 이하 출신 교사이다.

농어촌 어린이집 교사 학력을 보면(표 3 참조) 도시에 비해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교사의 비율이 크게 낮고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보인다(주. 중소도시의 경우 고졸 10.8%, 전문대졸 53.1%, 4년제졸 31.6%, 대학원졸 3.1%임³⁾). 설립유형별로 볼 때 특히 농어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고졸이 18.9%나 되므로 보육 질적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라. 적정 인력의 부족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를 채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⁴⁾ 2014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어촌 지역 유치원이 방과후 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정도여서 도시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더 높은 차이로 농어촌에서의 교사 채용이 어려워 보인다(표 4 참조). 특이한 점은 유치원의 경우는 교사에 대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70%에 이르고 있으나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는 지원자부족보다는 지원자는 있으나 적격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에 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적격자가 부족하더라도 교사 수를 채워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3)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4) 여기서 공립유치원 교사는 방과후전담교사를 의미한다.

〈표 4〉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애로 사항

단위: %(개원)

구분	애로사항 여부				채용에서 어려운 점					
	있음	없음	계(사례수)	$\chi^2(df)$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족	빠른 사직	기타	계(사례수)	$\chi^2(df)$
유치원 전체	37.6	62.4	100.0(521)		44.9	41.3	8.2	5.6	100.0(196)	
지역 규모				5.1(2)***						32.7(6)
대도시	38.2	61.8	100.0(136)		28.8	61.5	5.8	3.8	100.0(52)	
중소도시	32.7	67.3	100.0(226)		32.4	48.6	10.8	8.1	100.0(74)	
읍면	44.0	56.0	100.0(159)	70.0	18.6	7.1	4.3	100.0(70)		
어린이집전체	60.2	39.8	100.0(631)		46.8	37.6	9.5	6.1	100.0(380)	
지역 규모				15.8(2)***						85.3(6)***
대도시	55.7	44.3	100.0(228)		69.3	15.7	11.8	3.1	100.0(127)	
중소도시	54.0	46.0	100.0(200)		51.9	27.8	13.0	7.4	100.0(108)	
읍면	71.4	28.6	100.0(203)	23.4	64.1	4.8	7.6	100.0(145)		

자료: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23, p. 125 표 재구성.
*** $p < .001$

〈표 5〉 농어촌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조리 담당자

단위: %(명)

구분	조리사 유자격 취사부	조리사 무자격 취사부	원장/ 원감	교사	영양사	기타	계(수)
유치원							
전체	64.9	6.7	0.6	3.1	21.0	3.7	100.0(188)
공립	61.0	3.3	0.0	4.1	26.8	4.9	100.0(143)
사립	77.5	17.5	2.5	0.0	2.5	0.0	100.0(45)
어린이집							
전체	48.9	24.5	25.9	0.0	0.2	0.5	100.0(412)
국공립	96.1	3.9	0.0	0.0	0.0	0.0	100.0(33)
사회복지법인	94.8	3.4	1.7	0.0	0.0	0.0	100.0(45)
민간	61.5	23.1	14.8	0.0	0.5	0.0	100.0(187)
가정	8.2	37.4	53.1	0.0	0.0	1.4	100.0(147)

자료: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78-79 표 재구성.

또한 급·간식을 조리하는 인력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조리담당 인력 부족으로 원장이나 교사가 급·간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꽤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유치원 급·간식 조리를 담당하

고 있는 사람으로 조리사(유자격자+무자격자)가 71.6%, 영양사가 21.0%로 나타났다. 이는 설립 유형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립은 영양사가 조리하는 비율이 26.8%이나 사립은 영양

사 조리 경우는 거의 없고(2.5%) 조리사가 조리하는 비율이 95%에 이른다. 한편 교사가 급·간식을 조리하는 비율이 3.1% 있다.

어린이집에서 급·간식 조리 담당은 취사부가 73.4%이고 원장이 25.9%였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조리를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3. 농어촌의 요구

농어촌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몇몇 영유아 부모를 면담하고 그들이 가진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와 관련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에서 도출된 농어촌 원장과 부모가 가진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농어촌 교사 수급 어려움 완화

농어촌 지역의 특성 상 젊은 보육교사의 유입은 매우 힘든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질의 교사 수급문제는 농어촌 어린이집의 질 관리의 문제와 맞닿아 있으므로, 교사 수급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대부분의 젊은 교사들은 이 지역은 대도시와 멀고 오지라고 생각해서 이곳 어린이집에 취업하려 하지 않거든요. 더 많은 교통비와 숙식을 제공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수급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원장).

나.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

어린이집 부모와의 면담에서 현재 연장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농어촌 지

역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귀가가 늦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연장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은 영유아 숫자가 적다는 데 있으므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과 정책지원의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연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어린이집당 한 두 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보육을 개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고, 거점시설 운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 특별활동 다양화

농어촌 지역의 특성 상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영유아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므로, 어린이집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기타 문화시설, 교육시설 또한 풍족하지 못하여 이러한 요구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여건 상 특별활동, 유치원 특성화 지도를 위한 강사를 영입하는 것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웃한 유치원끼리 혹은 어린이집끼리 강사를 공유하고 시간을 함께 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라.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정책 필요

농어촌의 특성이 도시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고, 원아의 등·하원 거리가 멀고, 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점으로 압축된다. 면담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도 비슷한 운영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즉, 정원 충족이 어렵고 교사 채용 또한 매우 힘든 형편이며, 차량운행도 운영

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촌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차량유류비 상승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읍지역보다 면지역은 더 심각해요. 교사나 영유아가 50% 수준 밖에 안채워지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 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수당을 받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안보내는 경우가 많고, 교사도 시골에서 근무하려 하지 않고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

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의 접근성 강화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도내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육아지원 시설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규모 농어촌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하기가 현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지역을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바. 보조교사 자격의 완화

농어촌 지역에 교사수급이 어려운 점은 보조교사 수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악된다. 보조교사의 자격과 지원조건 등이 도시와 다르게, 보다 완화되어 설정되길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사.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특성 상 교사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부모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가 업무

가 많고 바쁘기 때문에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교사 행정업무 감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4. 개선안

상기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농어촌 영유아 교육·보육 측면이 가진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개선

첫째, 혼합연령반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혼합연령반이 다수여서 누리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안은 누리과정 진행을 위한 교사를 투입하여 연령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70% 이상이 교사 1명만 있는 유치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순회교사 투입 등 수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가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리과정보조금으로써 우선적으로 보조교사 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간 협력을 통해 일정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 개별 학습으로 힘든 누리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집단 활동으로 진행해볼 수 있도록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유아교육 네트워크 사업만으로는 어린이집이 포함되기 힘이 들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공동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취사부 지원이 제고되어야 한다.

급간식 마련을 교사가 직접해야 하는 유치원에 대해 구체적 실태파악을 하여 일일 일정시간 인력지원을 하여 급간식 조달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이웃한 초등학교 등의 급식기관으로부터 이동차량을 통해 간단한 급간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셋째, 농어촌 교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 수급이 어려운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농어촌 교사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면담조사에 의하면, 교통비나 체재비 등을 고려하면 교사 채용에 큰 장점으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농어촌 교사에 대한 수당이 일정 정도 증액되거나 근린 주거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교사 복지 방안 실현이 필요하다.

넷째, 특별활동 지도 강사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은 특성화활동, 특별활동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사섭외 등이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강사풀 구성에 대한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나.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가정 지원

첫째, 조손 가정 영유아에 대한 등록 및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

조부모 양육가정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특히 조손가정 영유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조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혼자 두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유도하며 육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문화적 실조에 빠지지 않도록 조손가정 영유아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시간연장 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이 확충되어야 한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농어촌의 경우 영유아 부모가 기존보다 연장된 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충족해주는 시설이나 기관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수가 많지 않고 공립유치원이 대부분인 농어촌에서 연장보육 또는 돌봄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지역의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장 보육 운영을 구역별로 거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구분 없이 지역 공동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어린이집에 지원될 수 있는 연장보육료는 해당 아동이 유치원에서 연장보육을 받더라도 해당자에게 인당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따라 기관 구분 없이 지원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유아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의 경우가 된다.

셋째, 부모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어촌 부모에 대한 다양한 부모교육 제공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농어촌 부모일수록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취업모가 많아 부모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체험의 인프라 또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자녀와 함께 부모가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인원으로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우므로, 유치원, 어린이집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 센터가 주도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지역으로 교육 인력과 도구가 이동하여 부모교육이 가장 원활할 수 있는 시간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공된다면 농어촌 부모의 교육문화적 욕구,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등이 모두 충족될 수 있다.

다. 농어촌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개선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교육·보육의 제도적 지원 기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농어촌 분원 설치가 요구된다.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 중심 설치 사업이므로 근지역인 농어촌에 설치된 경우는 매우 소수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다 읍면 주민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두 센터는 주요 업무가 육아 지원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므로 영유아 육아지원 인프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재정 여건상 어려운 일이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농어

촌 관할 지자체의 자발적 설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이미 농어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육아지원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원(分院)을 읍면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두 센터가 협정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교육, 어린이집의 보육 질제고 지원, 영유아 가정 양육 지원 등에서 다양한 사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이들의 물리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옮기거나 순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영유아 부모나 육아지원 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양육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과 홍보 인프라 등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원이 함께 활용하고,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의 인력이 기존 센터의 육아관련 중복 사업을 맡거나 인력부족 부분을 보완하면서 업무를 지원하게 되면 육아지원의 측면에서 농어촌 내 두 센터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원의 설치를 위해서는 각각 다른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도 및 시·군·구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과 실천적 추구 의지가 요구된다.